

積石塚의 起源에 관한 검토

이상길(경남대학교 사학과)

1. 머리말

한반도 남부지방의 청동기시대 묘제는 石棺墓와 支石墓가 주류이다. 석관묘는 karasuk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지석묘는 그 계통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積石으로 이루어진 封墳, 원형 또는 방형의 墓域施設(區劃石), 多段墓壙과 多重蓋石 및 墓壙內 積石, 木棺의 사용 등 새로운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墳墓를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그 起源에 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원후 4세기 무렵부터 등장하는 新羅 積石木槨墳의 기원을 알타이지역의 Pazyryk고분에서 찾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신라의 적석목곽분과 Pazyryk고분은 구조상 매우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나, 거리나 시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또한 그 사이에 兩者를 연결할 만한 분묘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청동기시대 분묘에 이미 積石이나 木槨(木棺)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어, 그 연원을 추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몽골 초원에는 청동기시대의 積石墓와 匈奴時代의 積石墓 또는 板石墓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이 분묘들에도 積石, 圓形 또는 方形의 墓域施設, 石棺이나 木棺을 사용하는 매장시설, 多段墓壙 등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분묘와 유사한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여전히 隔絶되어 있기는 하지만, 몽골 초원의 동시기 분묘와 한반도 남부지방의 분묘를 비교하여, 상호간의 관련성을 추적하는 작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몽골 초원의 墳墓

1) 靑銅器時代

몽골의 청동기시대 분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積石墓, 네모무덤, 積石祭祀遺構 등으로 불리는 Khirgisuur이다. 이 분묘는 하천변의 낮은 평지(河岸段丘?)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산과 넓은 평지가 접하는 완만한 斜面에 위치한다.

중앙에 매장시설을 덮고 있는 원형 또는 방형의 적석이 있고, 그 주위에 분묘의

범위를 구획하는 墓域施設이 둘러져 있다. 평면 형태는 원형과 방형이 混在하며, 묘역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적석은 높이 1m 내외에서부터 2-3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돌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段을 지우는 경우도 있다. 원형의 적석 한쪽에 다시 방형으로 돌출한 부분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는데, 분묘에서의 제사나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생각된다.

묘역시설의 외곽에는 매장 의례와 관련이 있는 별도의 祭祀遺構가 분포하는데, 작은 돌을 돌려서 만든 간단한 구조이다. 이 유구의 내부나 바닥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으며, 동물의 뼈나 목탄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犧牲儀禮가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Tov aimag Moggon morit sum Ikh Khotol유적에서는 적석 외곽에 소형의 配葬墓(딸린 무덤)가 만들어져 있었다.

埋葬主體部는 석관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1기의 매장시설을 가지지만, 하나의 적석 속에 여러 기의 매장주체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적석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본래의 地面을 조금 파고 석관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되는 유물의 양은 매우 적은 편이며, 적석 혹은 분묘 주위에서 토기편이나 동물뼈가 출토되기도 한다.

적석묘의 입구나 주변 또는 적석의 중앙에 사슴돌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관련 유적 및 지역 : Tov aimag Moggon morit sum Ikh Khotol유적, Khentii aimag Tsenkhermandal sum Ustyn denj지역, Selenge aimag Darkhan city Sant지역, Bulgan aimag Orkhon sum Orkhon지역, Bulgan aimag Buregkhangai sum Zalaa tolgoi지역, Overkhangai aimag Gochin-us sum Ikh Dorolj유적·Paaluu유적

2) 匈奴時代 Hunnu(Hsiung-nu)

匈奴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몽골 초원의 곳곳에는 이 시기에 형성된 많은 분묘가 산재한다. 이 시대 분묘의 입지는, 청동기시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산과 평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분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돌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적석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외형상 약간의 돌이 지표상에 드러나 있기는 하나 지상으로 일정 높이까지 쌓아올린 봉분과는 다르며, 적석묘에 비해 규모가 작다. 분묘의 외곽에 묘역시설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埋葬主體部는 木棺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 적석묘와 크게 다르다. 먼저 2-3단의 墓壙을 파고 그 속에 목관을 안치한 다음, 나무 또는 板石을 이용하여 뚜껑을 덮었다. 뚜껑 위에도 여러 겹의 판석이나 割石으로 놓고, 묘광의 외곽에는 넓은 판석을 세워서 돌렸다.²⁾ 판석 내부의 적석은 판석의 최대높이 이하로만 채워 봉분과는 차이가 있다. 때로는 木蓋를 사용하였으므로, 상부에 있던 적

석이 아래로 함몰되기도 한다.

Tov aimag Altanbulag sum Morin tolgoi 유적은 '3段墓壙+木棺+積石'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묘광의 段 부분에서는 殉葬된 사람의 뼈나 소, 개 등 동물의 뼈가 출토되어 葬送儀禮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평면상 적석의 한쪽에 방형의 돌출부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전통이 상호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매장부에서는 前漢時代 獸帶鏡과 白樺樹皮로 만든 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관련 유적 및 지역 : Tov aimag Altanbulag sum Morin tolgoi 유적, Bulgan aimag Buregkhangai sum Ikh dulaan 지역, Khentii aimag Tsenkhermandal sum Ustyn denj 지역, Khentii aimag Batshireet sum Uglugchingol 지역

3. 양 지역 분묘의 특징 비교

1) 몽골 청동기시대와 흉노시대 분묘의 공통점

청동기시대와 그 뒤를 잇는 흉노시대를 거치는 오랜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a. 원형 또는 방형의 평면형태, b. 원형적석에 덧붙인 방형의 돌출부(제사시설)의 두 가지 요소이다.

2) 몽골 靑銅器時代 분묘의 특징

- c. 積石으로 이루어진 封墳
- d. 분묘 외곽을 區劃하는 묘역시설
- e. 적석 중앙에 사슴뿔을 세움
- f. 주위에 配葬墓 조성
- g. 하나의 적석 내에 여러 기의 분묘 조성
- h. 매장주체부는 石棺(묘광이 얇다)
- i. 분묘 자체가 祭壇으로서 기능(積石祭祀遺構)

3) 몽골 흉노시대 분묘의 특징

- j. 봉분 없이 내부를 평평하게 積石 또는 敷石
- k. 외곽에 판석을 세워서 돌린 板石墓
- l. 多段墓壙과 묘광내 積石
- m. 木棺 사용

2) 이처럼 분묘의 외곽에 판석을 세워서 돌린 묘를 일반적인 석관묘와 구분하기 위해 '판석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한반도 남부지방 분묘와의 비교

몽골 청동기시대-훈노시대 분묘의 구성요소를 한반도 남부지방의 청동기시대 분묘와 비교해 보면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a.평면형태 : 묘역시설을 가진 청동기시대 분묘는 모두 평면 방형 또는 원형이다. 이 경우 원형과 방형이 混在하기도 한다.(덕천리, 진동리, 소곡리, 산포, 율하B, 여의곡, 저포E, 이금동, 대평리)

b.원형의 적석에 덧붙인 方形突出部 : 보통 원형의 묘역시설에 방형으로 덧붙여진 것으로, 제사 등 의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진동리, 여의곡)

c.封墳의 존재 : 청동기시대 분묘에 이미 봉분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었음은 분명하다. 적석을 이용하여 봉분으로 올린 경우(진동리, 율하B)와 흙을 쌓아서 봉분을 조성한 예(덕천리)가 있다.

d.墓域施設 : 이미 區劃墓 또는 敷石墓라는 이름의 구획시설이 존재함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매장주체부의 외곽에 방형 또는 원형의 시설을 가하여 묘역으로 설정한 사례는 아래 대상유적 대부분에서 확인된다.(덕천리, 진동리, 소곡리, 회현리, 산포, 율하B, 여의곡, 저포E, 이금동, 대평리, 월성동)

e.墓標石의 존재 : 몽골 적석총의 중앙에 사슴들을 立石처럼 세우는 것은 이 사슴들이 墓標로서 기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석묘의 상석 역시 묘표로서 기능하였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분묘의 중앙에 표석처럼 돌을 세우는 예가 많다. 대구 월성동유적에서는 매장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입석이 방형 구획의 중앙에 세워져 있었다.(덕천리, 평라리, 진동리, 소곡리, 회현리, 산포, 율하B, 여의곡, 저포E, 이금동, 동촌리, 대평리, 월성동)

f.配葬墓 : 구획된 묘역시설 주위에 작은 분묘가 조성된 경우, 이 분묘가 큰 묘에 딸린 配葬墓로서의 기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덕천리, 진동리, 회현리, 이금동)

g.하나의 적석 내부에 여러 기의 분묘 조성 : 개개의 적석이 이어져서 하나의 거대한 적석이 된 경우도 있다. 한반도 북쪽지방에서 ‘침촌리유형’이라고 부르는 분묘형식이 이것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상인동, 가인리, 도항리)

h.매장주체부(石棺) : 청동기시대 분묘의 경우 매장주체부의 구조가 석관 또는 석곽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이다. 거의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정도이다.

i.분묘 자체가 祭壇으로서 기능 : 몽골의 Khirgisuur를 적석제사유구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분묘 자체가 제사 또는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단고인돌’로 불려지는 분묘 또는 시설이 존재한다. 분묘는 그 자체가 의례적인 상징물이므로, 兩者 간의 이러한

유사성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덕천리유적과 같은 대규모의 묘역시설 역시 체단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j.묘역 내부에 평평하게 積石하거나 敷石 : 방형 또는 원형의 묘역시설 내부에 분묘를 조성하고, 그 주위에 평평하게 돌을 까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것이 때로는 개석 상부의 적석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흉노시대의 분묘와 마찬가지로, 봉분이 지상으로 솟은 구조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 내부를 채우는 적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평라리, 진동리, 소곡리, 산포, 여의곡, 저포E, 도항리, 이금동, 대평리)

k.板石墓 : 일견 묘역시설인 구획묘와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흉노시대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다단묘광의 외곽에 판석을 세워서 둘러 예는 구별이 가능하다.(평라리, 소곡리)

l.多段墓壙과 墓壙內 積石 : 2-3단의 묘광을 파고 그 속에 다층의 개석이나 적석을 한 예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당연히 매장주체부는 지표면에서 매우 깊이 내려가게 된다.(덕천리, 회현리, 율하B, 도항리, 상남동, 동촌리, 내동, 외동, 소토리)

m.木棺의 사용 : 지석묘의 매장주체부 시설은 격관 또는 석곽이 기본이다. 그러나 석곽 내부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는 예가 있기도 하며, 아예 매장주체 시설이 목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덕천리, 대곡리, 율하B, 상남동, 내동)

*관련되는 대표적인 유적 : 창원 덕천리유적, 화순 대곡리유적, 보령 평라리유적, 창원 진동리유적, 사천 소곡리유적, 김해 회현리유적, 대구 상인동유적, 거창 산포유적, 김해 율하B지구, 진안 여의곡유적, 밀양 가인리유적, 합천 저포E지구, 함안 도항리유적, 창원 상남동유적, 사천 이금동유적, 보성 동촌리유적, 진주 대평리유적, 대구 월성동유적, 김해 내동유적, 창원 외동유적, 양산 소토리유적

*목관의 사용을 한대의 영향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그 이전에 이미 석곽에 목관 또는 목곽의 요소가 도입되어 있었다. 적석의 요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향은 김해 등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흉노 등 북방지역의 유물과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

*관을 태우는 등 북방지역의 매장습속

*장송의례의 동일요소

4.연구과제

이상으로 몽골의 청동기시대-흉노시대 분묘와 한반도 청동기시대 분묘를 비교하여 보았다. 물론 두 지역이 각기 다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적의 입

지나 분묘의 재료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의 구성이나 경제형태가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거리가 매우 멀다는 점도 문화 전파의 장애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분묘에 그 이전과는 다른 요소들이 대거 등장하는 점은 분명히 다른 지역의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기적으로 비슷한 만큼, 양 지역의 분묘에 나타나는 속성의 상당 부분이 서로 일치하거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몽골과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분묘 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조사를 거듭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 김정배 외, 1998, 몽골의 岩刻畫, 열화당
국립중앙박물관·몽골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99, 몽골 우글룩칭골유적
국립중앙박물관·몽골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1, 몽골 모린 톨고이 흥노무덤
정석배, 1995, 몽골의 先史時代, 학연문화사
이상길, 1996,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一視覺,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총
이상길, 2003, 경남지방 支石墓의 構造와 年代, 경남지역연구 제9집